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0호 [루게 제24968호] 주제 104 (2015)년 7월 9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끓어치고 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격동하는 20세기의 중심에서 서서 우리 조국을 세상에 빛내여주시고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백두산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며 만수대인덕을 찾는 군중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백두의 억센 신념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역사를 창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곳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도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이 끓어넘어 흘렀다.

각지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비롯한 영상작품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저히 뭉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으며 김영남 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8일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 계시는 혁명의 대진당, 주체의 최고성지는 승연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땅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고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정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의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혁명의 대성인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섰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조국을 자주의 성새, 필승불패

의 사회주의보루로 역세에 다져주시는 사회의 천출위인들을 우러러 그들을 유론관철정, 당정책위원회를 대한 우 리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수령의 유론관철정, 당정책위원회의 불길 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리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 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짜짜아진 엘베그드르프 몽골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오는 친서를 우리 나라 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대통령수석인 담빈 간호야그의 비서가 선물로 드려왔다.

본사기자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21돐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련방 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렉후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7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의 고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월남인민지원군대표단, 제일조선청년 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세련된 령도력 나 라의 통상민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 의 자주화를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방목 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세이민족조선 평양시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

맹세 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이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들 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최후대로서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것을 결심한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 대장의 선창에 따라 맹세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찌기 청년운동으로 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령에 따라 앞장서도록,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난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은 탁월한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의 강성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령사에 이룩해나갔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빛나는 업적

이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대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송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혁명적 불멸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위대한 투쟁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갔었다.

발전소건설을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든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제기하는 무조건 끝내겠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동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가리켜 백두산으로,《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선군청년문화의 참모습을 민방에 펼쳐며 청년미풍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온 사회에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미덕과 미풍이 더욱 차려지게 하겠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마다에 소중히 새겨안고 청년양도장들을 잘 꾸리고 관리하는것과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발전소 지구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겠다.

청년들격대지휘관들은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돌격대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영웅들로 여 세계 키워나갈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천경만겁의 성세, 방패가 되어 청년들의 심장을 혁명에 바치며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선의 선봉에서 앞장서는 위훈을 펼쳐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사랑속에 후대들이 받아안은 사회주의혜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서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습니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 신고 공우유차들이 수도 평양의 어린 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달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20여년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정,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며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 공우유차들께는 조국까지의 총주행거리의 지구들레를 수백회 돈고 맞먹는 1610여만km에 달하며 수도의 탁아소들과 유치원, 학교들에 공급한 공우유, 풍산유량은 수십만에 달한다.

세상에 나라는 많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은 튼튼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높은 공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 적요구에 따라 매일 공급해주는 나 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주는 공우유차들이 시간에 맞추어 줄지어 달리는 평양의 새 풍경이 생겨 거너게 된것도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사랑속에서는 어린이들을 국

가 맡아키우는것만큼 그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에 어린이식료품공 용을 위해선 높은 수준의 공우유 생산의 점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였다.

어느해인가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초원에 흐르는 젖소떼를 바라보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유 를 마음껏 먹일수 있는가를 주상 화담과 신심을 안겨주며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 공우유차들께는 조국까지의 총주행거리의 지구들레를 수백회 돈고 맞먹는 1610여만km에 달하며 수도의 탁아소들과 유치원, 학교들에 공급한 공우유, 풍산유량은 수십만에 달한다.

세상에 나라는 많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은 튼튼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높은 공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 적요구에 따라 매일 공급해주는 나 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주는 공우유차들이 시간에 맞추어 줄지어 달리는 평양의 새 풍경이 생겨 거너게 된것도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사랑속에서는 어린이들을 국

공급정형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후대 사랑에 받들려 높은 수준의 공우유 생산에 공물들을 일심으로 갖추기 위해 특별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시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공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 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 들에게 공우유를 정성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하루도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수출 90(2001)년 7월 8일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을 안시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시 기에도 공우유가 정상적으로 생산공급 된데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못내 만족하시면서 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이 공장 과 같은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더 많이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난해 12월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해추진 은정깊은 조치 에 따라 수도의 한복판으로 달리는 공우유차를 볼 때면 공우유를 먹으 며 친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

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쌓였던 피로 가 풀린다고, 그럴수록 장군님의 송고한 믿음의 더 잘 받들어가야 했었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편된 인민군대 식료공장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관화, 무진화하여 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장부터 70歲까지 공장의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뜨거워만 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속에 지금 평양어린이식료 품공장의 전방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우리 아이 들에게 맛있는 영양가 높은 공우유를 먹이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절절한 소원은 더욱 아름다운 현실 로 꽃피어날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도의 거리 를 달리는 사랑의 공우유차들의 정 다한 모습에서, 아이들의 행복에 넘 쳐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에서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 념을 더욱 가다듬고있으며 우리 조 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혁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태양의 성지는 인민을 위한 거룩한 한평생 길이 전한다

다 함없는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꿈에도 못 잊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천만민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소용돌이 치게 하는 7월 8일.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도 잃고 한 초한초가 몇십년새월같이 무겁게 흐르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20여년 세월이 흘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7월을 안고 년년 이 해돋이를 새겨온 그 나날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절출한 위인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혁명해 왔는가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겨놓지 못할 나날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천만민사, 제자들의 그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7월 8일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다.

태양의 미소가 어려웠던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의 눈금을 축축히 적시 주었다.

얼마나 뾰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태양의 품을 찾아오는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말도 안되고 그리움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국가의 결속한 평도자이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으며 전세계가 우리르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지도이시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감정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친 위대한 어버이를 잊지 못하는 인민의 숭고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해 질갈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사람들은 정녕 우리 수령님들은 존함그대로 위대한 태양



이시구나 하는 격동된 심정으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세상의 흐름과 더불어 추억은 점차 희미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7월과 더불어 더해만지고 그이를 높이 모시고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윤명성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제일먼저 찾고싶은 곳이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가 있었기에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든 날과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다.》



기록 영화화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함께 계시여》 상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기록영화 《어버이수령님 일군들과 함께 계시여》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되었다.

강령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영화화를 관람하였다.

영화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꽃피어 걸어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일군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참된 혁명전사로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헌신의

로고를 영화는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혁명의 기수, 권위투사로 내세워주시고 인민의 총복으로 성실히 일해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손우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주제의 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간다고도 결을 감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다.

영화에 수록된 잊을수 없는 역사적화폭들을 통하여 그들은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천봉으로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성장하여 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평도를 총정대해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전제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을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평도마라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대할수록 한생을 바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나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자립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지난날 국력이 약하여 사대와 망국을 속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식민지약소민족의 처지에서 벗어나 오늘날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것이 아닐까.

천리마 동상 앞에서

얼마전 수도의 창건기리를 지나는 나의 눈앞에 천리마동상이 우뚝이 안겨왔다.

지나온 창조와 건설의 년대기를 말해주는 영웅조선의 상징인 천리마동상이 나의 가슴에 안겨주는 느낌은 류다름없이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새 전투에서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할것임이다.》

한담속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속의 천리마, 그것을 내 조국의 현실에 불러오시여 절결같은 속도를 창조하시고 기적과 변혁

을 이룩하신분은 우리 수령님 이시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마라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세기적인 랍후와 빈곤관을 이겨내야 하는 항구적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수년의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속도전의 불길놀이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었다.

지속을 뒤흔드는 천리마의 발구름높이 고삐와 할살의 밧은 우리의 국력이 우주에 닿게 하였다. 못 잊을 추억을 안고 조국이 걸어온 력사의 나날을 돌이켜보

던 나는 천리마동상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늘날과 아득하게 높이 날아오르는 천리마, 그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대조국의 전통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시려고 어버이수령님 인민에게 주신 제부족의 재부가 아닌가.

길어가는 사색속에 바라본 만수대안덕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거연히 서계시었다.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경계부른 책임일군회의회에서 부강변영의 화살표를 끝마르

며 천리마동상에 수놓처럼 일떠세우던 군중의 재현인듯 눈고났은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개선문에서부터 천리마동상까지 넓고 시원하게 쭉 뻗은 대로를 따라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민족의 영웅의 조국개건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그곳에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국을 향해 달려나오던 내 조국의 상징 천리마동상까지의 그 길에 오늘날도 그리움이 파도처럼 설레이 고있었다. 나는 숨넘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사람들이여, 이 길을 무심히 걷지 마시라. 바로 이 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한 선진선과 로고의 천리마가 눈고 들어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한영민

안날을 축복해주고계신다. 천리마동상, 그것은 단순한 휴려간 력사의 어느 한 시대만을 태워 더 높이, 더 빨리 세기의 상상봉으로 오르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증언자가 아니라, 천리마동상야에 수놓처럼 일떠세우던 군중의 재현인듯 눈고났은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개선문에서부터 천리마동상까지 넓고 시원하게 쭉 뻗은 대로를 따라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민족의 영웅의 조국개건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그곳에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국을 향해 달려나오던 내 조국의 상징 천리마동상까지의 그 길에 오늘날도 그리움이 파도처럼 설레이 고있었다.

나는 숨넘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사람들이여, 이 길을 무심히 걷지 마시라. 바로 이 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고한 선진선과 로고의 천리마가 눈고 들어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현지도의 갈우에 새겨진 일화들

위대한 당의 평도마라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대할수록 한생을 바쳐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나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소문없이 먼저 찾으신 곳

조국에 개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환영인사를 받으시기도 전에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만나주시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보다 보름전에 벌써 우리 수령님의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도가 진행된 대대하여 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제 34(1945)년 9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문도 없이 북조선전지 총국(당시)을 찾으시었다. 전기는 산업의 원동력이

탄전에서 맞으신 생신날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내 한 10년만 젊었어도 당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보겠다고 절결하게 하신 고이였었다.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그 이야기 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개천, 안주지구를 현지도로 하시면서 탄생 65돐을 맞으실 때에 있는 사실이다.

주제 66(1977)년 4월 14일 밤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속소에는 불이 꺼질줄 몰랐다.

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밑천으로서 산업을 부흥시키는데서나 인민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더라. 전기가 산업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제일먼저 여러분을 찾아 왔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신 우리 수령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기산업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걸로 어느 한 변전소도 돌아보시었다. 우리 나라의 국정에 수력 발전소연계의 장래한 모습

이 새겨진 사실, 주제적인 동력체계를 일떠세우실 때까지 구상을 펼치신 일화 등 전력공업발전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우리 수령님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해방된 조국에 개신하시어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도가 진행된 대대하여 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제 34(1945)년 9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문도 없이 북조선전지 총국(당시)을 찾으시었다. 전기는 산업의 원동력이

한 일군이 그만 주무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을 때였다. 석탄각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시며 고이였었다.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그 이야기 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개천, 안주지구를 현지도로 하시면서 탄생 65돐을 맞으실 때에 있는 사실이다.

너무도 진중하게 하시는 그의 이야기에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

이 새겨진 사실, 주제적인 동력체계를 일떠세우실 때까지 구상을 펼치신 일화 등 전력공업발전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우리 수령님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해방된 조국에 개신하시어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도가 진행된 대대하여 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제 34(1945)년 9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문도 없이 북조선전지 총국(당시)을 찾으시었다. 전기는 산업의 원동력이

한 일군이 그만 주무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을 때였다. 석탄각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시며 고이였었다.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 그 이야기 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개천, 안주지구를 현지도로 하시면서 탄생 65돐을 맞으실 때에 있는 사실이다.

너무도 진중하게 하시는 그의 이야기에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

다들 날이 민족최대의 경사 날도 우리 수령님께서서 탄전에서 보시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